

OB들의 KAIT 20주년 소감 >> 전임 협회장

“스무 살 청년 KAIT에 바란다”



구자두 초대 협회장

“IT산업이 한층 도약할 수 있도록 발판을 구축한 것이 협회의 가장 큰 성과입니다. 새로운 20년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협회는 회원사간의 결속을 더욱 강화하고 세계적인 시야에서 외국 경쟁사의 정보를 신속히 알려주며 정보통신의 제반 법규와 제도를 앞서 제정, 개정해야 합니다. 더 나아가 정보화 사회로부터 새롭게 닥쳐오는 미래사회에 대비해야 합니다”



한태희 3대 협회장

“나라의 경쟁력은 IT산업에 달려있습니다. 그런 점에서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는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으며, 앞으로 더욱 할 일이 많아지고 어깨가 무거워질 것입니다.”



정용문 4대 협회장

“이제 한국의 정보통신산업은 경쟁력을 가진 세계 규모의 산업입니다. 산·관이 더욱 밀착해서 정책을 세우고 정보통신의 정부세수를 민간개발자금에 더 많이 투입해서 경쟁력을 촉진해야 합니다.”



정장호 5·8·9·10대 협회장

“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가 어느새 설립 20주년을 맞이했다니 감회가 큼니다. 앞으로 재정을 좀 더 확충해 상징과 기반을 마련하고 인력과 조직을 보강해 산업계의 미래를 제시하고 견인하는 능력을 공고히 하기를 바랍니다.”



남궁석 6·7대 협회장

“협회는 설립 이후 많은 씨앗을 뿌렸고 지금은 그 씨앗들이 성장해 많이 보편화됐습니다. 이제 새로운 씨앗을 발굴하고 심고 키워야 합니다. 특히 정부정책과 업계 사이를 조율하는 링커 역할, 정보통신업계가 나아갈 방향을 바로 잡아주는 가이드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.”

OB들의 KAIT 20주년 소감 >> 전임 임직원

한국지능로봇산업협회

조영훈 사무국장 (93~'04 근무)

협회 20주년 정말 감동적입니다.

지난 20년 간 굳건하게 정보통신산업을 지켜온 것처럼 만행으로,

대표단체로 자리매김하시길 기대합니다.

한국IT렌탈산업협회

이봉주 사무국장 (97~'04 근무)

KAIT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

현재, 우리나라 IT의 대표단체인 KAIT의 위상은 임직원

여러분의 프로정신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.

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의 자랑으로 남아주시길

기원 드립니다.

스타우트 프라자 관리단

손용기 회장 (99~'00 근무)

KAIT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. 협회가 다양한 사업 중,

특히 회원사의 정보교류의 장인 정보통신포럼과 창업을

지원하는 벤처창업경진대회의 활성화에

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.

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

허상웅 감사역 (87~'90 근무)

KAIT 창립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. KAIT의 원년멤버로서 근무한 저로서는 더욱 감회가 새롭고, 우리나라 IT산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로 우뚝 서서 그 위치를

확고히 하고 있음에 자랑스럽습니다.

이제는 해외 IT산업계에서 알아주는 협회가 되기를 기대 합니다.

차세대컴퓨팅산업협회

김용순 사무국장 (99~'05 근무)

KAIT의 20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

돌이켜보면 KAIT는 그동안 IT산업의 중심에서 사업자들을 위해

헌신하면서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.

이제 앞으로 정보통신관련 협단체의 만행으로서

기동역할을 다 하실 것으로 기대하며

또, 디지털로 하나 되는 희망한국 건설을 위해

정보통신 역사에 길이 남는

큰 족적을 남기시길 진심으로

기원합니다.

한국RFID/USN협회

박원근 팀장 (00~'07 근무)

KAIT 창립 20주년을 지면으로나마

축하드릴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.

이제 능률한 스무살 청년이 된 KAIT !

20년 동안 많은 일을 해왔지만, 앞으로도

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 발전과 활성화에

주춧돌 역할을 충실히 해 낼 것이라고

믿습니다.